

2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마음 편한~ 타요」 사업

□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애인들의 병원·관공서 방문 등을 위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보행상 장애인 한정)의 한계로 이용 불편 가중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호소

안녕하세요.
아들을 둔 청각장애인 엄마입니다.
하모니콜에 전화예약 문의했더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아 타지 못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귀가 안들리고 말을 못하여 아들과 같이 택시를 부르기엔 불편한 사례가 많습니다.
임산부, 몸이 불편한 장애인, 어린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 조건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 발췌

시각장애인만 해도, 어디 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동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시각장애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동 지원을 받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도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얼마 전 지원센터에 차량 지원을 요청했지만, 차량이 부족해 약속 장소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현재 고작 13대의 차량을 운행한다. 이 말고도 많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인이 일반 건물, 시내버스 등으로 이동하기엔 아직도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어렵기만 하다.

- 이에 안산시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차량 증차 및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코로나19 적극 대응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모든 장애인 ※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
- 차량 운영 계획

| 구분 | 운영계획 | 비고 |
|-------|---|--------------|
| 차량 3대 | ▶ 기존 시설 이용자(시각 장애인) 중심 사전 예약제 실시 | |
| 차량 2대 | ▶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우선 사전 예약제 실시 ▶ 1일 전 예약이 없는 경우, 당일 다른 장애인 이용 가능 | 신규 1대, 교체 1대 |

□ 향후 운영 계획

- 2020. 7월부터 확대 운영 계획
-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의 차이로 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 하모니콜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포괄하여

이용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장애 차별 없는 이동편의 제공**

- **휴일 근무 차량 확대** : 코로나19 관련 장애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휴일 운영 차량 확대

※ 휴일 병원 방문, 돌봄 지원을 위해

現 1대 토요일 운영 → 토요일 2대 운영 예정

【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

- 차량별 전담 운전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차량 안전 점검 및 수리
- 운전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차량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전담 운전원을 통한 차량 운행일지 관리